

합격기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자신에 대한 믿음, 합격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집중’



윤 성 경

- 1982년 5월 생
- 서울 목동고등학교 졸업
- 국민대학교 법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고시계에 합격수기를 쓰게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고시생일 때에는 여러 합격기를 읽으며, ‘나도 빨리 합격해서 합격기를 써야지’ 다짐하곤 했는데, 이런 기회가 진짜 오게되니 밀어놨던 숙제를 하는 기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2차 시험을 치른지는 1년이 넘었고 고시생일 때가 아득히 먼 옛날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몰라 컴퓨터에 창을 띄우고 단기를 여러 번 한 글에야 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준비동안 읽었던 합격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솔직하게 써볼까 합니다.

### II. 사법시험의 시작

법대에 오게되면서 자연스럽게 민법총칙교과서를 구입하게 되었고, 제가 구입한 책은 연세대학교 김상용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소설책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법서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하나의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기대어 소설책 보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글인데도 몇 십 페이지가 넘어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읽다보면 알겠지 하면서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선의와 악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읽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읽어도 읽어도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다가, 뭔가 법서만의 용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책 옆에 의문 나는 점들을 적어놓고는 확인하는 식으로 김상용 교수님의 민법총칙, 채권총론, 각론, 물권법을 그런 방법으로 읽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물음표가 줄게 되었고 세 번째 볼 때는 더 줄어갔습니다.

시험을 치기위해 민법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책을 보았기에 흥미가 생겼고, 나중에 민법에 자신감이 생겼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오탈자를 정리해서 교수님을 찾아보았더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고, 새 책이 나왔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법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고시를 해보아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 III. 2006년의 신입동 생활

2006년 3월이었습니다. 고시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시생들이 모여사는 신입동이란 곳에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잡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원을 다녀 매일매일 진도를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책과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 권순한 강사 +요해  
형법 : 신호진강사 +형법요론  
헌법 : 차강진강사 + 헌법강의(정회철 저)

책이나 강사는 자기와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대세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과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목표를 '1차 1년, 2차 1년'으로 세우고, 단기간에 공부를 끝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많이 공부하는 것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 지가 더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고시를 시작하면서 헤이해지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원 시스템 [기본강의 -> 판례강의 -> 모강 -> 마무리강의 -> 시험]을 계속 따라갔고, 매일 강의듣고 그날 강의만 복습하자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늘리지 않고 복습만 꾸준히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를 대견해 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6년이 지나고 2007년 2월 첫 1차시험을 쳤고, 평균 1점차 낙방이었습니다.

### IV. 방황의 시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모의고사를 봐도 성적이 잘나왔고 나름대로 시험에 자신감도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발표가 난 이후 공부도 되지 않고 마음도 못 잡고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성경구절을 보고는 평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6장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

오니 공홀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 하소서

## V. 문제점 파악하기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 8월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나의 문제점이 무언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차이로 떨어지고 나니 안이하게 공부하다가 또 적은 점수 차로 떨어지면 다시는 용기내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저의 문제점은

- (1) 마음의 여유, 안정 없이 달려오면서 자신을 괴롭힌 것
- (2) 국제법을 등한시 하여 남들보다 두 배이상 틀린 점
- (3) 가족법을 소홀히 한 점
- (4) 형법 총론의 학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외우기만 한 점
- (5) 헌법의 헌정사, 부속법령을 대충 봐서 안보느니만 못한 점
- (6) 강의만 따라가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점

## VI. 문제점 해결하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가 보였습니다. 이 때부터는 원래 보던 책에 과목당 문제집 1~2권씩을 풀고, 부족한 부분을 매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1차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많

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적은 점수차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컷라인보다 10점 높게 합격'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원래 사시라는게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머지에 집중하면 되지만, 컷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는 그 시간을 쥐지 않고 싶었습니다. 9월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책을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길 때 마다 이 순간 이해와 암기가 되지 않으면 다시 볼 시간이 없다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다른사람들보다 공부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고, 오래 앉아있으면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10시간 앉아 있다고 10시간 집중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꾸준히 하루 5시간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고 공부시간이 아닌 집중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볼 양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다 하면 자유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하루에 공부생각을 1시간이라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전에 코미디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다거나, 미드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 VII. 마인드컨트롤

수험기간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은 불면증이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신경쓰이는 게 있으면 아침까지도 잠을 못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베개를 바꿔보고, 술도 먹어보고, 운동도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수면제를 먹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 잠을 못자면 다음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 사이클이 계속되면 진도도 나가지 않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배수진을 치는 방법은 저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험에 나는 꼭 붙을 테지만 못붙는다 하더라도 나는 무슨일을 해도 성공할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자.

(2) 옆자리에 화장실도 안가고 공부하는 저 사람을 눈뜨고 졸고 있는 것이다.

(3) 오래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4)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5) 나는 반드시 붙는다. 그건 사실이다.

(6) 잠은 충분히 자자. 늦게 일어난다 해도 스트레스받지 말자.

이런 류의 자기 최면을 걸고, 내가 합격한다는 것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인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 VIII. 2번째 1차시험 합격

2008년 2번째 1차시험을 치르고는 채점을 하면서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커트라인보다 10점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요.

2번째 1차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문제집을 중점적으로 풀었고, 시험 한달 전부터는 국제법에 따로 시간내기 어려울 것 같아 아침 1시간씩 국제법을 보고, 지루하지 않게 하루 2과목씩 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앞에서의 마인드컨트롤 효과인지 시험장 가는 길에서도 웬지모를 자신감으로 든든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 IX. 제2차시험 재시합격

1차시험을 치루고는 휴식이 필요하며 초시는 포기하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원래 성격이 할 때 열심히 하는데 풀리면 한 없이 풀어지는 편이라, 결국 초시는 법전이나 받아오자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결과는 7법 과락이었습니다.

7월부터 마음을 잡고 1순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민소 : 이창한 + 사례집

상법 : 김혁봉 + 상법신강

형소 : 신이철 사례풀이 + 이지민 썬라시

행정 : 김기홍 + 나뉜준사례

민법 : 박승수 + 민법연습

형법 : 이재상 + 이케바

헌법 : 김유향 + 정저 사례연습

공부를 시작할 때 엄두해 두어야 할 것은 막판에 내가 볼 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는 일인거 같습니다. 쓸데없이 양을 늘리면 나중에 벽차기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양으로 반복해서 보고, 없는 부분만 챙겨놓자는 주의였습니다.

교과서와 사례집을 다 볼 자신이 없어, 1순환때부터 사례집위주로 돌렸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김기홍강사가 수업시간에 나눠준 사례묵음과 자료정도만 보았기 때문에 제일 불안하긴 했지만, 다른 사례집을 보기엔 엄두가 나지않아 여기에 1순환때부터 문제들을 모아서 같이 보았습니다.

형법의 경우도 이케바 한 권만 봤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2차 형법시험에 대응하는 저의 방법은 뼈먹지 말아야하는 논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사례를 풀 때, 기본적인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꼽으면 10여가지 되는데 이 사례에서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①공모공동정범 논의 썬야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② ③ ④ .. 기억이 안나네요.

이렇게 하면 썬야할 것을 못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력과목으로는 민법과 상법으로 잡았고, 시험을 보고나서는 행정법이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괜찮았던 기억이 나네요.

## X. 스트레스관리

저는 고시공부를 취미로 한다는 편견을 들을만큼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편입

니다. 공부할 때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제 나름의 푸는 방법은 매주 수요일은 맛있는 거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날, 토요일은 신림동 밖으로 나가 놀거나, 공을 걷거나, 가까운 예술의 전당 음악회를 가거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스타크래프트도 고시생의 율적인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고시공부는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하나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 XI. 마치며

수험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만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단기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독.하.다.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번으로 자신을 평가 받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조금은 이기적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항상 믿어주는 엄마, 사랑하는 동생 진서, 향수, 수험기간 동안 옆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했던 친구들 영재, 주현이, 윤지, 유미, 선화, 소연, 선혜, 현정, 종현, 동혁선배, 하영, 정환, 승우, 태인이 그리고 K, Y .. 그 밖에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